

총선 승패 가를 가능자는 수도권·PK 성적

〈부산·울산·경남〉

여야 1당 목표 '수도권서 4년 전보다 선전'이 제1조건
민주, PK·강원 약진·호남 회복...통합, 영남·강원에서 기대

4·15 총선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13일 여야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지역으로 수도권과 PK(부산·경남)를 꼽고 있다.

여야 모두 '1당 확보'가 총선의 가장 큰 목표다. 이번 가운데 여야 모두 지역구가 가장 많고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보다 선전하는 것이 '절적 승리'의 제1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지'이자 미래통합당에는 '덧발'인 PK 성적 역시 승패를 가늠할 주요 지표라고 보고 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2곳 가운데 82곳(서울 35곳, 경기 40곳, 인천 7곳)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이상의 성적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 비해 10석 정도는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21곳 중 91곳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이 보는 또 다른 승리 조건은 '전통의 힘지'인 PK와 강원 성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 5곳, 경남 3곳 등 PK에서 8곳을 확보했고 강원에서는 1곳에서만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적을 내 '선방'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애초 PK에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봤으나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원은 최소 3곳 확보로 약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덧발'인 호남 탈환도 관건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호남 28곳 중 3곳을 따내는 데 그쳤는데 이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민주당은 호남에서 최소 20곳 이상 '씩씩이' 기세를 보여 이 목표도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목표인 17석에 얼마나 근접하느냐도 승리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4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합당은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승리 기준을 지역구 130석으로 두고 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포함하고, 여기에 일부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까지 계산에 넣으면 원내 과반에 근접하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다.

권역별로는 승부처인 수도권 121석 중 절반 가까이 가져오고 정치적 터전인 영남에서 65석 전석을 얻어야 승리라고 자평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수도권 35석, 영남 48석을 얻었다.

통합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의석의 4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승리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TK(대구·경북)는 안정적이나, 부산·울산·경남은 상황이 조금 달라 현역에 2~3석을 더하는 정도까지도 예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판세가 막판까지 예측 불허인 강원도는 춘천의 분구, 현역의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인 4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패배나 다름없다는 게 안팎의 평가고, 충청권에서는 전체 28석 중 현역 지역구인 13석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례 15석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당선 가능성이 있는 보수 진영의 무소속 후보는 5명 내외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선거 막판, 연이는 막말 파문 악재로 중도·부동



총선 D-1...투표용지 검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13일 광주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북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관리 교육 후 투표용지 검사작업을 하고 있다.

최미밀집한 수도권에서 의석 전망치가 반 토막 나면서 내부적으로는 '개헌 저지선' (100석)이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 수도권에서 전멸에 가까운 성적 표를 받아들게 된다면 통합당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명진, 총선 등록 무효 처리

통합당 제명에 선관위 의결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시선관위)는 13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 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한편 차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있던 논란을 일으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당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

국회, 21대 개원 준비 돌입

개원종합지원실 개소

국회가 4·15 총선을 통해 꾸려질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은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의 문을 열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선거 다음 날인 16일부터 한달간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등록,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원종합지원실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할 의원 배지도 공개했다. 20대 국회까지는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완핀형으로 구분해 배지를 배부했지만 21대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의원 배지는 '금배지'로 불리지만, 99%를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든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총선 라운지

천정배 "반드시 호남 대통령 만들겠다"

광주 서구을 후보

민생당 천정배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2년 뒤 대선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면서 "만의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예속과 불모의 호남정치를 대한민국의 당당함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것은 바로 호



남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남대통령론은 소외된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정당한 몫을 찾자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오섭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해 역사 세워야"

광주 북구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4·19혁명정신에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전문 수록해 민주화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는 단재 신재호 선생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역사 속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며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된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쓰러져 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마지막 한 표까지 민주당 지지해달라"

나주·화순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화순을 찾아 "전국적으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제, 15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며 "선거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신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



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백신 산업특구 기반 생물 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 ▲원도심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청년 행복주택 추진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제 실현 ▲임업 공익적 직불제 확대 ▲택시대중교통법 제정과 생활택시 준공영제 도입 등의 화순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안주용, 미성년자 성착취 근절 4대 방안 제시

나주·화순 후보

민주당 안주용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다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의 근절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내용은 ▲N번방 전원 신원 공개 ▲N번방 전원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착취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 여부' 제외) ▲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강화 등이다. 안 후보는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를 용납할 수 없을 법의 심판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만약 사법부가 이전처럼 성착취방 운영자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호 기자 khh@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